

“장애인 콜택시 주말·휴일 운행 기피”

송성환 도의원 5분 발언, “전주 제외 13개 시·군 거의 운행 안해... 도, 실태 점검·도 직영 체계 검토해야”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은(전주3·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개선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송성환 의원

송 의원은 13일 제 34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주말·휴일 운행이 필요하지만 운영업체는 이를 기피하는데다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는 총 운행거리 66만2천km 중 주말·휴일이 20만5천km로 31%를 차지했다. 그러나 군산과 익산 등 13개 시군은 1만km 이하로 휴일에는 거의 운행하지 않았다. 특히 진안·순창·고창·무주지역 일부 콜택시는 주말·휴일에는 운행에 아예 하지 않았다.

송성환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권 최후의 보루인데도 무주·장수지역의 운행회수는 각각 355건, 474건으로 임실·순창 3,000여 건에 비해 10%수준에 불과하다”며 “군산시는 위탁업체 사장이 개인 업무에 장애인 콜택시 기사를 동원하고 견적서를 부풀리는 등 부실운영에 따른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은 해양경찰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모든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전주시

처럼 직영으로 전환할 것과 시군 및 광역 이동서비스를 통합, 효율적인 도 직영 체

계 구축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文정부 비전·국정과제 설명회 15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15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고자로 나서며 국정기획자문위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순서도 포함됐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당원에게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전 당원이 국정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습이 있어야만 민주당·문재인정부가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통일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서 “민주연구원도 당과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적 전망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는 지난 8월 21일 중앙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전북도당 등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 및 당직자,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총 19회에 걸쳐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최명철 “365일 엄마품 센터 설치”

전북도의회 최명철 의원은(전주4·국민의당)이 13일, 제34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365일 24시간 엄마 품 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최명철 의원

최 의원은 “정부는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가정을 돕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돌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복원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365일 24시간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선도적으로 나서서 저출산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365일 24시간 엄마 품 센터를 개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성공모델 통해 배우다

도의회 마을활성화연구회, 세미나 개최... 정책방향·발전방안·성공 사례 분석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마을활성화연구회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마을기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와 마을기업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성공모델로 손꼽히고 있는 정읍 공사량(유), 부안 백련농장의 사례를 통해 마을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양세훈 박사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책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마을기업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가장 적합한 정책이다”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을기업 대표의 리더십과 참여자들의 전문적 자질, 인력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며 지역의 대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지훈 센터장은 전라북도 마을기업 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마을기업의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마을기업사업의 현황 분석과 토론이 각종 마을관련 사업의 당면 과제 연구에 통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을기업 우수사례 발표에 나선 정읍 공사량(유) 서현정 대표는 지난 2012년 마을 주민 3명이 씨앗자금 237만원으로 시작해서 작년 기준 직원 20명에 8억9,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마을기업으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서 대표는 “공사량은 고구마, 귀리, 쌀 등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공동체 식구들의 열정과 재능을 자산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부안 백련농장의 김성숙 대표는 지난 2012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래 고용인력 14명, 매출규모 2억 원에 이르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청소년 교육과 건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백경태 대표의원(무주)은 “도내에는 100여 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폐업, 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가 75%에 이르고 있어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우수 사례를 통해 지역의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가 성공의 열쇠였음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도내 마을기업에서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서영교 복당’ 최종 의결... 與 121석 확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무소속 서영교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서 의원이 탈당한지 1년2개월여 만에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1일 당원자적심사위원회에서 서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을 탈당한 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지난 7월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당은 8일 당원자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서 의원의 복당을 중앙당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조강특위는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자리를 옮겨 생긴 사고당(지역위원회) 공석인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춘석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임종성 사무부총장, 민경한 윤리위원은 당원직으로 합류했다. 이외에 유은혜(경기)·전혜숙(서울)·박재호(부산울산경남)·박찬대(인천)·송기현(광원)·이기구(대전충남) 의원, 박혜자(광주전남)·한범덕(세종충북)·김혜정(대구경북) 지역위원장, 고성진 전국대학생위원장 등 13명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현재 공석인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방법도 결정했다. 시도당 위원장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선출되며, 대표성이 보장되는 경우 해당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최고위에서 임명한다. 당세 취약지역의 경우 조강특위에서 단수추천을 거쳐 최고위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뉴스

2017 **임실치즈축제**
10.6(금)~9(월)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일원

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체험형 관광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